

광주시, 품앗이 육아로 틈새돌봄 강화한다

긴급 육아 '삼삼오오 이웃돌봄' 19개팀 선정...최대 120만원 지원 도농산단·한부모 모임 등 다양...내달부터 저녁·주말·일상 돌봄 등

광주시가 품앗이 육아로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이웃집 긴급 육아 품앗이 '삼삼오오 이웃돌봄'에 참여할 자조모임 19개팀을 최근 선정하고, 모임별로 최대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류와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조모임은 상대적으로 돌봄 기반시설이 다소 미흡한 도시농촌산단, 한부모·장애인, 다문화·취약계층, 맞벌이 자조

모임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구청원과 함께 저녁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일상돌봄 등을 주체적으로 실천한다. 광주시는 선정된 자조모임의 지속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양육자 상담(컨설팅), 돌봄공동체 후원(멘토링), 아바 육아클럽·힐링캠프 등 아

빠 참여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첫 추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근접한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며 믿을 수 있는 이웃끼리 필요할 때 서로 맞돌봄을 통해 기존 시설돌봄으로 해결되지 않는 틈새돌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은 육아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웃이 함께 모여 육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함께 일상돌봄을 나누고 주도하는 촘촘한 광주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정착 돕는다

기술·경영교육 등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선순환 체계 구축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월까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기술·경영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정착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비(준비), 영농진입, 정착성장, 전문영농 순으로 단계별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우선 창농계획의 수립 기초 등을 배우는 창농 비

즈니스 교육(입문), 농업법인 등에 대한 청년농업인 농담프로젝트 교육, 청년농업인 성장 생태계 활력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워크숍을 완료했으며, 지역 선도농업인과 현장교육으로 진행되는 청년 영농 현장 멘토링, 청년 스마트농업교육 등은 10월까지 진행한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또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스마트팜 경영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에서 스마트온실 경영

과 생산, 유통 등 실습기회를 주고,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대상자로 선발되면 최대 2년간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도 있다. 이어 영농 정착단계인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인 기술과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용된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년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진입부터 소득 창출 등 성장과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광주시, 5월 7일까지

광주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식용중식특별법 공포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으며,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중식·도살할 수 없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탄소중립 실천 나섰다

기후변화주간 줄기·소등 행사 등

광주도시공사는 "지구의 날 54주년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이남까지 기후위기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공사는 기후변화주간 동안 소등 행사, 기후행동(줄기) 캠페인, 기후위기 인식제고 환경영양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 탄소중립 생활실천 직원교육,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E-순환거버넌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GMCC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정민관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통해 기후위기 심각성을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도시공사도 전사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ESG경영을 확대해 나간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린이날 시청 잔디광장으로"

광주시, 내달 5일 신청없이...먹거리·공연·선물 등 풍성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가족 뮤지컬·마술쇼·체험 교육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다채로운 야외 행사가 펼쳐진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술·비눗방울 공연, 온 가족 즐라후프 공연, 강기정 시장과 풍선비전답 쓰기 등이 진행된다. 사진 신청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무료 운영된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솜사탕과 팝콘을 무료로 나눠주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에게 문구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한다. 어린이날 당일 비가 오면 광주시청 1층 시민홀로 자리를 옮겨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도 이날 '어린이 안전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 등 시민 누구나 함께 어울려 안전 체험과 다양한 안전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오전 11시 안전체험과 함께 가족의 소중한

을 깨우치고 감동과 교훈을 선사하는 가족 뮤지컬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술쇼와 비눗쇼, 풍선아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체험관 실내·외에 소방차량 및 소방관과 함께하는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된다. 야외 주차장에서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해 화재·지진 대피 체험 교육을 진행하며, 타로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날 행사는 무료로 운영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어른들은 흠뻑 내며 뛰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어린이들은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 집중

시, 119구조대 강사 초빙 구조장비 사용법 등 교육

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무등홀에서 '밀폐공간 질식사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밀폐공간 청소 등 밀폐공간 작업 때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노출로 인한 질식사 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구조와 비상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관을 초빙해 밀폐공간 작업·감독을 하는 현업업무 종사자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훈련은 밀폐공간 내부의 유해·위험요인 종류와 위험성, 호흡용 보호구 착용법,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밀폐공간에서의



광주 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관이 지난 26일 시청 무등홀에서 '밀폐공간 질식사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 실습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